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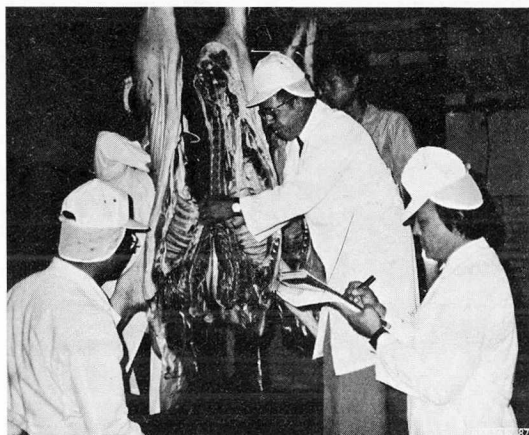
일본후생성 관계자의 내한과 돈육내 약품잔류문제

이제 양돈농가들은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농장이건 수출을 하지 않는 농장이거나를 막론하고 돈육내에 설파메타진 등 유해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돼지를 사육해야 하겠다. 유해물질이 남아있는 축산물을 사람이 섭취하면 특이체질의 사람에게는 쇼크를 일으키고, 만성적으로 내성균을 유발하거나 신체발육 이상, 암의 유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

그동안 우리 양돈업계는 일본에 수출하는 돈육을 중심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충분치 못했다. 또 설사 수출돈육에서 설파메타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이를 덮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유해물질 잔류문제를 “쉬쉬”하며 지낼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문제는 비단 돈육수출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땀땀이 드러내 놓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랍 6일 보건사회부는 바시트라신 등 항생제 17종, 설파메타진 등 합성항균제 18종, 제라놀 등 성장호르몬제 5종 등 모두 40종에 대한 「축산물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검사를 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도축 또는 시중에 유통중인 축산물을 검사해 항생물질이 기준치보다 많으면 수거·폐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후생성 유육위생과 관계관인 다카야 사토시氏와 후지와라 신이찌로氏 등 2명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수출돈육의 유해물질 잔류문제와 관련된 국내 조사를 마치고 귀국한 바 있다.

이들은 1주일간 국내에 머무르면서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등 정부기관, 국립동물검역소, 가축위생연구소, 서울대 수의과대학 등 검사기관, 선진사료 등 배합사료 공장, 제일제당 등 육가공공장, 제일농장 등 수출돈 생산농장, 도축장 등을 방문, 항생물질 등의 사용실태와 배합사료의 관리상태, 도축장에서의 예비검사 실시상황, 동물검역소의 업무내용 등을 소상히 파악했다. 일본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검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수출돈육의 검사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88년 12월 1일 국내산 수출돈육에 대해

설파메타진 검사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검사를 해왔다. 지난 1년간 수출돈육중 559건을 검사한 결과 이중 6.1%에 해당하는 34건에서 설파메타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국내의 검사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 돈육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또 나름대로 일본측에서 요구하는 유해물질 잔류방지대책을 수립, 일본에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처럼 일본내에서 계속 유해물질이 검출돼 검사면제신청 명분을 잃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작년까지 수입식육에 대해 설파메타진 검사만을 해왔으나, 금년부터는 수입식육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이유로 검사항목을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검사종류도 한가지에서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일본은 작년까지는 수입통관시에만 검사를 했으나, 금년부터는 수입통관시에는 물론, 수입통관된 제품일지라도 후생성 산하 각 지역보건소를 통해 유통 중인 식육도 검사하도록 했다.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수입품 전량을 수거 폐기 또는 반송키로 하고 현재 실시중이다. 이와함께 일본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돼지고기를 비롯해 쇠고기, 닭고기, 장어, 새우 등 수입식육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나라의 대일돈육수출 관건은 유해물질 잔류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유해잔류문제가 심각하다. 가뜰이나 공급과잉으로 돼지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유해물질 잔류로 돈육의 수출길마저 막혀버린다면 우리 양돈업계는 더욱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식품의 안정성 문제에 크게 신경을 써 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수입 자몽에서의 알라 킴출과 비식용 우지라면 사건에서 보듯 이제는 식품위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

〈표2〉 일본내 한국산 돈육 설파메타진 검사실적

(검사기간 : '88. 11~'89. 10)

한국내 도축기간	검사건수	불 합 격	
		건 수	수출업체
'88. 9~'89. 5	290	18(6.2%)	7개사
'89. 6~'89. 10	269	16(5.9%)	5개사
합 계	559	34(6.1%)	9개사

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정성 관심은 곧 국내산 식품의 안정성 관심도 제고로 나타날 것은 뻔한 이치다. 특히 이와같은 관심속에서 소비자단체 등에서 돼지고기의 유해물질 잔류문제를 들고 있어나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양돈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양돈농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양돈산업, 아니 자신의 생업 보호를 위해 비장한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해야만 한다. 눈 앞의 작은 이익때문에 “나 하나 썸이야 어떠냐”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실로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제 양돈농가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출하 30일전부터는 비육돈후기사료를 반드시 급여하고, 출하 20일전부터는 동물약품의 투약을 금지하도록 하자. 그리고 비육돈후기사료를 급여하기 바로 전에 사료급여기를 깨끗이 씻어 약품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배합사료회사에서도 양돈산업의 몰락은 곧 사료업계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즉 배합사료 제조시에는 반드시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 첨가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비육돈후기사료 생산라인을 별도 설치해서라도 약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당국에서도 돈육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홍보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검사기관을 대폭 확대해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돈육내 유해물질 잔류문제를 감출때는 이미 지났으며, 이제는 떳떳이 드러내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자. **■** 〈취재 : 김동성〉